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0년 6월호

Contents

| | |
|----------------------------|----|
| I. 한일경제 동향 | 2 |
| 1. 한일 무역 동향 | 2 |
|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5 |
|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6 |
|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 9 |
| 1. 일본 무역 동향 | 9 |
|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12 |
|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14 |
|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19 |
|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23 |
| III. KJCF & KJE News |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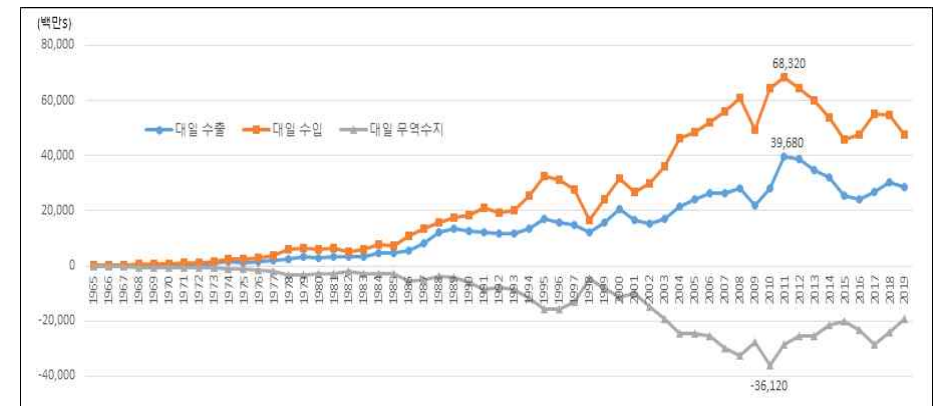
I. 한일경제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부터의 통계에서 한 해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COVID-19 발생 이후 대일 수출 수입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정도였는데,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4월과 5월 연속으로 감소함
-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2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4월과 5월에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
- 발표 이후 대일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2월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 한일 무역의 2020년 5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일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5월 상황

| | 수출(백만\$, %) | | 수입(백만\$, %) | | 수지(백만\$)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 한국 전체 | 34,901 | -23.6 | 34,455 | -21.0 | 446 |
| 일본 부분 | 1,798 | -29.0 | 3,103 | -16.5 | -1,305 |
| 일본 비중 | 5.2 | | 9.0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23.6%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29.0% 감소하여 18.0억 달러가 됨
-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21.0%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작게 16.5% 감소하여 31.0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4.5억 달러로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3.1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전월 5.5%에서 5.2%로 감소하였고, 수입 경우는 전월 10.5%에서 9.0%로 감소하였음

- <표2> 및 <표3>은 주요 對日 수출 및 수입 품목의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2〉 한국의 2020년 5월 주요 對日 수출품목

| 순위 | 품목명 | 2019년 5월(백만\$, %) | | | 2020년 5월(백만\$, %) | | |
|----|-----------|-------------------|-------|--------|-------------------|-------|--------|
| | | 수출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수출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 총계 | | 2,533 | 0.8 | -1,183 | 1,798 | -29.0 | -1,305 |
| 1 | 철강제품 | 367 | -0.8 | -196 | 249 | -32.1 | -111 |
| 2 | 정밀화학제품 | 190 | 6.4 | -114 | 230 | 20.8 | -64 |
| 3 | 전자부품 | 175 | 6.6 | -306 | 131 | -25.1 | -215 |
| 4 | 산업용전자제품 | 112 | 0.8 | -116 | 112 | 0.8 | -96 |
| 5 | 석유화학제품 | 159 | -22.0 | -174 | 101 | -36.2 | -32 |
| 6 | 광물성연료 | 347 | 18.3 | 267 | 99 | -71.3 | 80 |
| 7 | 농산물 | 99 | 1.2 | 70 | 92 | -7.0 | 77 |
| 8 | 기계요소공구및금형 | 104 | 20.4 | 6 | 76 | -27.1 | -29 |
| 9 | 금속광물 | 74 | -2.7 | 31 | 72 | -2.8 | 44 |
| 10 | 플라스틱제품 | 78 | 19.9 | -82 | 61 | -21.4 | -98 |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0년 5월 주요 對日 수입품목

| 순위 | 품목명 | 2019년 5월(백만\$, %) | | | 2020년 5월(백만\$, %) | | |
|----|---------|-------------------|-------|--------|-------------------|-------|--------|
| | | 수입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수입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 총계 | | 3,716 | -16.0 | -1,183 | 3,103 | -16.5 | -1,305 |
| 1 | 정밀기계 | 240 | -62.8 | -194 | 407 | 69.4 | -366 |
| 2 | 철강제품 | 562 | 0.0 | -196 | 360 | -36.0 | -111 |
| 3 | 전자부품 | 481 | 6.8 | -306 | 346 | -28.0 | -215 |
| 4 | 정밀화학제품 | 304 | -20.0 | -114 | 294 | -3.3 | -64 |
| 5 | 산업용전자제품 | 227 | -15.4 | -116 | 208 | -8.2 | -96 |
| 6 | 기초산업기계 | 175 | -17.5 | -88 | 198 | 13.5 | -137 |
| 7 | 플라스틱제품 | 160 | -12.7 | -82 | 159 | -0.4 | -98 |
| 8 | 산업기계 | 161 | -7.5 | -73 | 145 | -10.1 | -91 |
| 9 | 석유화학제품 | 332 | 5.9 | -174 | 133 | -59.9 | -32 |
| 10 | 수송기계 | 226 | 10.1 | -116 | 107 | -52.7 | -62 |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 경우는 주요 10개 품목 중 정밀화학제품이 20.8%, 산업용전자제품이 0.8%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광물성연료가 71.3%, 석유화학제품이 36.2% 철강제품이 32.1%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주요 10개 품목 중 정밀기계가 69.4%, 기초산업기계가 13.5%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석유화학제품이 59.9%, 수송기계가 52.7%, 철강제품이 36.0% 감소하였음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3>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4>는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3월에는 22,890억엔(실행 49,931; 회수 27,042)이었으나, 4월에는 15,642억엔(실행 32,633; 회수 16,991)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음

<표4>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 2020년 2월 | | 2020년 3월 | | 2020년 4월 | |
|-----------|--------------|--------------|--------------|--------------|--------------|--------------|
|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 전체(억엔) | 13,275 | 1,132 | 22,890 | 3,569 | 15,642 | -244 |
| 한국 부분(억엔) | 124 | 47 | 95 | 39 | 122 | 28 |
| 한국 비중(%) | 0.9 | 4.2 | 0.4 | 1.1 | 0.8 | |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4월 8일, 5월 13일, 6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한편,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3월 95억엔(실행 179; 회수 84)에서 4월 122억엔(실행 155; 회수 33)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서 0.8%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3월에는 3,569억엔(실행 26,412; 회수 22,843)으로 플러스였으나, 4월에는 실행보다 회수가 많아 -244억엔(실행 21,327; 회수 21,572)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음
-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39억엔(실행 178; 회수 139)에서 28억엔(실행 211; 회수 182)으로 감소하였지만 플러스를 유지하였음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558만 명이 됨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327만 명에 달함

〈그림4〉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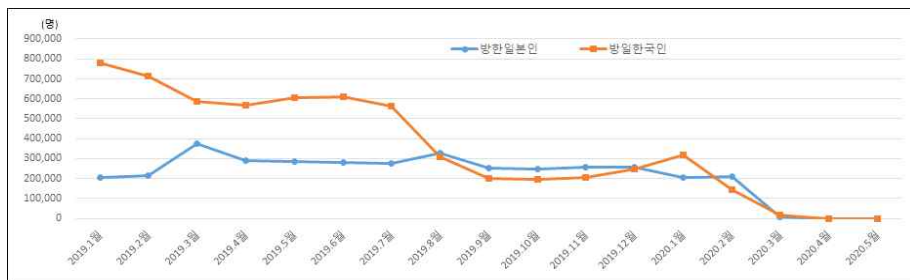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일외국인 총수는 3,188만 명이었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1,750만 명이었음)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5〉는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방일한국인 수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최근 COVID-19 영향으로 방일한국인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그림5〉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바뀜
- 방일한국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2월 143,896명, 3월 16,700명, 4월 300명, 5월 20명 등으로 급격하게 줄어듦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감소추세로 바뀜
- 방한일본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등으로 급격하게 줄어듦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5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급격하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고 있음

〈표5〉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5월 상황

| 한국방문 | 외국인 (명, %) | | | | 일본방문 | | |
|--------------|------------|---------|-------|--------|-----------|---------|--------|
| | 2019년5월 | 2020년5월 | 증감률 | | 2019년5월 | 2020년5월 | 증감률 |
| 전체 (재외한국인포함) | 1,485,684 | 30,861 | -97.9 | 전체 | 2,773,091 | 1,700 | -99.9 |
| 방한 일본인 | 286,273 | 413 | -99.9 | 방일 한국인 | 603,394 | 20 | -100.0 |
| 일본인 비중 | 19.3 | 1.3 | | 한국인 비중 | 21.8 | 1.2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외국인(재외한국인 포함) 전체 수는 30,861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7.9%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413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19년 5월 19.3%에서 2020년 5월 1.3%로 감소함
-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7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2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0.0%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9년 5월 21.8%에서 2020년 5월 1.2%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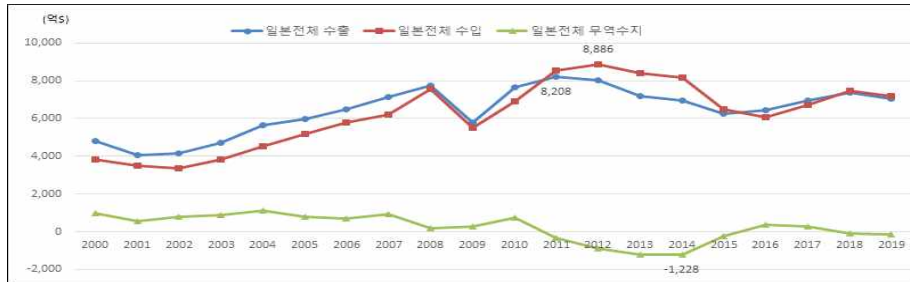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1. 일본 무역 동향

□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6>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 일본 무역의 2020년 5월 상황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일본무역의 2020년 5월 상황

| | 2019년 5월 | 2020년 5월 | 증감률 |
|------------|-----------|-----------|-------|
| 수출(백만¥, %) | 5,837,841 | 4,185,622 | -28.3 |
| 수입(백만¥, %) | 6,803,249 | 5,023,840 | -26.2 |
| 수지(백만¥, %) | -965,408 | -838,218 | -13.2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6월 26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28.3% 감소하여 4조 1,856억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유, 항공기, 석탄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26.2% 감소하여 5조 238억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의 경우 5월의 적자는 전년동월(9,654억엔 적자) 및 전월(9,319억엔 적자)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큰 금액(8,382억엔)이라고 할 수 있음

- <표7>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5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7> 일본 무역의 2020년 5월 지역별 상황

| | 수출(백만¥, %) | | | 수입(백만¥, %) | | | 수지(백만¥, %) | |
|--------------------|------------------|--------------|--------------|------------------|--------------|--------------|-----------------|--------------|
| | 수출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수입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수지금액 | 증감률 |
| 총액 | 4,185,622 | 100.0 | -28.3 | 5,023,840 | 100.0 | -26.2 | -838,218 | -13.2 |
| 아시아 | 2,745,192 | 65.6 | -12.0 | 2,739,540 | 54.5 | -11.8 | 5,652 | -60.4 |
| 중국 | 1,126,329 | 26.9 | -1.9 | 1,511,535 | 30.1 | -2.0 | -385,206 | -2.3 |
| 홍콩 | 254,065 | 6.1 | -7.8 | 5,711 | 0.1 | -39.1 | 248,354 | -6.7 |
| 대만 | 359,343 | 8.6 | 3.3 | 236,567 | 4.7 | -1.3 | 122,776 | 13.5 |
| 대한민국 | 329,261 | 7.9 | -18.0 | 200,905 | 4.0 | -27.1 | 128,356 | 1.8 |
| 싱가포르 | 139,671 | 3.3 | 0.2 | 95,148 | 1.9 | 34.9 | 44,523 | -35.4 |
| 태국 | 172,845 | 4.1 | -32.9 | 192,998 | 3.8 | -14.9 | -20,153 | - |
| 말레이시아 | 77,464 | 1.9 | -27.1 | 105,808 | 2.1 | -34.3 | -28,344 | -48.3 |
| 인도네시아 | 45,838 | 1.1 | -42.2 | 124,940 | 2.5 | -21.1 | -79,102 | -0.1 |
| 필리핀 | 50,975 | 1.2 | -42.6 | 52,909 | 1.1 | -44.5 | -1,934 | -69.6 |
| 베트남 | 116,237 | 2.8 | -13.8 | 162,965 | 3.2 | -21.6 | -46,728 | -36.0 |
| 인도 | 37,971 | 0.9 | -58.1 | 22,485 | 0.4 | -62.2 | 15,486 | -50.1 |
| 대양주 | 73,746 | 1.8 | -52.8 | 334,767 | 6.7 | -25.9 | -261,021 | -11.6 |
| 호주 | 53,333 | 1.3 | -59.1 | 285,158 | 5.7 | -27.5 | -231,825 | -11.8 |
| 뉴질랜드 | 9,298 | 0.2 | -49.7 | 31,644 | 0.6 | -9.2 | -22,346 | 36.6 |
| 북미 | 613,434 | 14.7 | -51.6 | 663,699 | 13.2 | -26.5 | -50,265 | - |
| 미국 | 587,929 | 14.0 | -50.6 | 578,348 | 11.5 | -27.5 | 9,581 | -97.6 |
| 캐나다 | 25,505 | 0.6 | -67.3 | 84,907 | 1.7 | -18.8 | -59,402 | 123.0 |
| 중남미 | 116,574 | 2.8 | -55.3 | 195,977 | 3.9 | -36.0 | -79,403 | 75.9 |
| 서유럽 | 422,494 | 10.1 | -35.4 | 661,261 | 13.2 | -30.7 | -238,767 | -20.4 |
| 독일 | 105,177 | 2.5 | -35.5 | 176,873 | 3.5 | -31.6 | -71,696 | -24.9 |
| 영국 | 60,525 | 1.4 | -38.2 | 47,244 | 0.9 | -42.7 | 13,281 | -14.0 |
| 프랑스 | 43,644 | 1.0 | -20.5 | 74,808 | 1.5 | -48.8 | -31,164 | -65.8 |
| 네덜란드 | 64,120 | 1.5 | -39.0 | 23,108 | 0.5 | -27.5 | 41,012 | -43.9 |
|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 89,670 | 2.1 | -30.3 | 130,973 | 2.6 | -31.2 | -41,303 | -33.2 |
| 중동 | 83,633 | 2.0 | -48.6 | 225,879 | 4.5 | -72.0 | -142,246 | -78.0 |
| 아프리카 | 40,878 | 1.0 | -52.7 | 71,741 | 1.4 | -15.0 | -30,863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6월 26일)에 근거하여 작성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65.6%, 수입의 54.5%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12.0% 감소하였고, 수입은 11.8% 감소하였음
- 중국은 압도적인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6.9%, 수입의 30.1%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약간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中 무역흑자는 3,852억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8.6%, 수입의 4.7%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약간 증가한 반면 수입은 약간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228억엔으로 전년동월 대비 13.5% 증가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7.9%, 수입의 4.0%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여 일본의 對韓 무역흑자는 1,284억엔으로 1.8% 증가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14.0%, 수입의 11.5%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美 무역흑자는 96억엔으로 97.6% 감소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전반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35.5%, 수입이 31.6% 감소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38.2%, 수입이 42.7% 감소하였음

- <표8>은 일본전체 무역의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8> 일본 무역의 2020년 5월 품목별 상황

| | 수출(백만¥, %) | | | 수입(백만¥, %) | | |
|---------|------------|-------|-------|------------|-------|-------|
| | 수출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가액 | 구성비 | 증감률 |
| 총액 | 4,185,622 | 100.0 | -28.3 | 5,023,840 | 100.0 | -26.2 |
| 1 식료품 | 57,266 | 1.4 | 6.6 | 543,202 | 10.8 | -12.3 |
| 2 원료품 | 61,375 | 1.5 | -32.6 | 339,046 | 6.7 | -25.8 |
| 3 광물성연료 | 34,995 | 0.8 | -72.6 | 621,169 | 12.4 | -57.2 |
| 4 화학제품 | 616,143 | 14.7 | -7.0 | 649,721 | 12.9 | -6.1 |
| 5 원료별제품 | 521,518 | 12.5 | -23.8 | 624,949 | 12.4 | -3.6 |
| 6 일반기계 | 873,253 | 20.9 | -23.2 | 597,307 | 11.9 | -12.5 |
| 7 전기기기 | 850,901 | 20.3 | -13.7 | 829,011 | 16.5 | -17.2 |
| 8 수송용기기 | 541,655 | 12.9 | -60.2 | 165,838 | 3.3 | -55.8 |
| 9 기타 | 628,516 | 15.0 | -14.4 | 653,596 | 13.0 | -25.3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6월 26일)에 근거하여 작성

- 식료품의 수출만이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음
- 수출 경우는 구성비가 가장 높은 일반기계(20.9%)가 23.2%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기기기(20.3%)가 13.7%, 기타(15.0%)가 14.4%, 화학제품(14.7%)이 7.0%, 수송용기기(12.9%)가 60.2% 감소하였음
-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등이 포함된 수송용기기의 수출 감소가 수출 전체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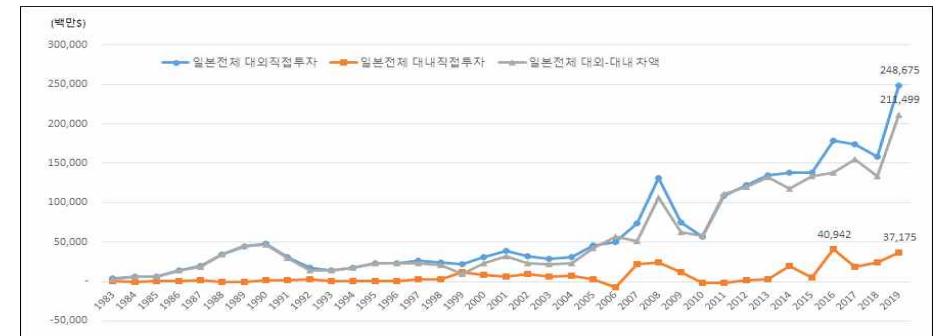
- 수입 경우는 모든 항목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구성비가 가장 높은 전기기기(16.5%)가 17.2%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13.0%)가 25.3%, 화학제품(12.9%)이 6.1%, 원료별제품(12.4%)가 3.6%, 광물성연료(12.4%)가 57.2% 감소하였음
- 원유,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석탄 등이 포함된 광물성연료의 수입 감소가 수입 전체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7>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9>는 2020년 4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5,642억엔(실행 32,633; 회수 16,991)으로 플러스였지만, 전월 22,890억엔 대비 감소하였음

<표9> 일본 직접투자의 2020년 4월 상황

| | 대외직접투자(억엔, %) | | 대내직접투자(억엔, %) | |
|-------|---------------|-------|---------------|--------|
| | 투자금액(Net) | 구성비 | 투자금액(Net) | 구성비 |
| 합계 | 15,642 | 100.0 | -244 | 100.0 |
| 아시아 | 4,356 | 27.8 | -1,004 | 411.5 |
| 중국 | 1,672 | 10.7 | -118 | 48.4 |
| 홍콩 | 66 | 0.4 | -711 | 291.4 |
| 대만 | 236 | 1.5 | 25 | -10.2 |
| 한국 | 122 | 0.8 | 28 | -11.5 |
| 싱가포르 | 549 | 3.5 | 187 | -76.6 |
| 태국 | 601 | 3.8 | -322 | 132.0 |
| 인도네시아 | 248 | 1.6 | -2 | 0.8 |
| 말레이시아 | 259 | 1.7 | -97 | 39.8 |
| 필리핀 | 153 | 1.0 | 1 | -0.4 |
| 베트남 | 204 | 1.3 | 1 | -0.4 |
| 인도 | 187 | 1.2 | 1 | -0.4 |
| 북미 | 3,984 | 25.5 | 150 | -61.5 |
| 미국 | 3,718 | 23.8 | 140 | -57.4 |
| 캐나다 | 266 | 1.7 | 10 | -4.1 |
| 중남미 | 1,300 | 8.3 | 16 | -6.6 |
| 대양주 | 1,879 | 12.0 | -297 | 121.7 |
| 호주 | 1,742 | 11.1 | -297 | 121.7 |
| 뉴질랜드 | 141 | 0.9 | - | - |
| 유럽 | 3,837 | 24.5 | 857 | -351.2 |
| 독일 | 496 | 3.2 | 77 | -31.6 |
| 영국 | 170 | 1.1 | 19 | -7.8 |
| 프랑스 | 25 | 0.2 | 277 | -113.5 |
| 네덜란드 | 724 | 4.6 | 251 | -102.9 |
| 중동 | 28 | 0.2 | 34 | -13.9 |
| 아프리카 | 259 | 1.7 | - | - |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6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대외직접투자는 지역적으로 아시아(27.8%), 북미(25.5%), 유럽(24.5%), 대양주(12.0%) 등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분산되어 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3,718억엔(2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호주 1,742억엔(11.1%), 중국 1,672억엔(10.7%) 등이 많았음
- 한편, 2020년 4월의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244억엔(실행 21,327; 회수 21,572)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는 전월의 3,659억엔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금액이 플러스인 국가는 프랑스(277억엔), 네덜란드(251억엔), 싱가포르(187억엔), 미국(140억엔) 등으로 유럽 및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금액이 마이너스인 국가는 홍콩(-711억엔), 태국(-322억엔), 호주(-297억엔), 중국(-118억엔) 등이었음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정부의 2020년 5월 경제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6.19 내용 정리)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0>과 같음

<표10> 일본 주요 경제지표

| | 2018년 | 2019년 | 2019년 7-9월 | 2019년 10-12월 | 2020년 1-3월 | 2020년 2월 | 2020년 3월 | 2020년 4월 | 2020년 5월 |
|-----------------------------|--------|--------|---------------|-----------------|---------------|-------------|-------------|-------------|-------------|
|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 0.3 | 0.7 | 0.0 | -1.9 | -0.6 | | | | |
| <개인소비> 소비총합지수(실질) | 0.1 | 0.1 | 0.4 | -3.0 | -0.8 | -0.8 | -2.9 | -5.6 | |
| <민간설비투자> 자본재투자지수(수송기계제외) | 3.9 | -5.8 | -0.7 | -9.5 | -5.7 | -5.7 | -9.3 | -7.8 | |
|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 94.2 | 90.5 | 90.6 | 86.5 | 86.3 | 87.1 | 90.5 | 79.7 | |
| 증감률 | -2.3 | -4.0 | -5.4 | -9.4 | -9.9 | -12.3 | -7.6 | -12.9 | |
|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 -8.4 | 10.1 | | 3.9 | 2.5 | 13.0 | 8.0 | 6.0 | |
| <수출입> 수출수량 | 1.7 | -4.3 | | -3.8 | -5.5 | -2.4 | -11.2 | -21.3 | P -27.3 |
| 수입수량 | 2.8 | -1.1 | | -4.5 | -7.0 | -17.3 | -2.5 | P 1.4 | P -14.9 |
|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 1.1 | -3.0 | -1.1 | -6.8 | -4.5 | -5.7 | -5.2 | -15.0 | |
| <법인 경상이익> 전체규모-전체산업 | 3.7 | -3.5 | -5.3 | -4.6 | P -32.0 | | | | |
| <도산> 기업도산전수 | 8,235 | 8,383 | | 2,211 | 2,164 | 651 | 740 | 743 | 314 |
| 증감률 | -2.0 | 1.7 | | 6.8 | 12.9 | 10.7 | 11.7 | 15.1 | -54.8 |
|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 2.4 | 2.4 | 2.3 | 2.3 | 2.4 | 2.4 | 2.5 | 2.6 | |
| <물가> 국내기업물가 | 2.6 | 0.2 | -0.9 | 0.3 | 0.6 | 0.8 | -0.4 | -2.4 | -2.7 |
|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 1.0 | 0.5 | 0.3 | 0.5 | 0.5 | 0.4 | 0.4 | 0.1 | |
| <금융> 넷케이 평균주가 | 22,310 | 21,697 | 21,264 | 23,041 | 21,808 | 23,180 | 18,974 | 19,208 | 20,543 |
| 환율(엔/\$) | 110.40 | 108.99 | 107.31 | 108.72 | 108.79 | 109.96 | 107.29 | 107.93 | 107.31 |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5월 및 6월)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됨에 따라 최근 회복하는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4월에 전월 대비 5.6% 감소함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약세 움직임을 보이지만, 소비자 심리는 악화 경향이 멈추고 있는 중임
 - 선택적 지출은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남아 있지만, 5월 긴급사태선언의 해제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여행은 2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매우 저조한 수준이 계속되고 있음
 - 한편, 외식은 서서히 영업활동이 재개되고 있고, 최근 회복 조짐이 보임
 - 가전제품 판매도 5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소비는 긴급사태 해제에 따라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하면서 사회경제 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수요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최근 약세 기조를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季報’ (1-3월期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0년 1-3월期는 전기 대비 6.7% 증가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1% 증가, 비제조업이 7.0% 증가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최근 약세이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3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0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4-6월期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계획은 감소가 예상됨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에서는 과잉상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완화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최근 약세이며, 건축공사비 예정액도 약세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감소와 장래가 불투명하는 인식의 증가로 당분간은 신중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건설은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일부 약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최근 보합 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4월에 전월 대비 12.0% 감소하여 연율 환산으로 79.7만호가 됨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감염증 영향에 따른 거래 억제도 있어서 감소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유지되고 있음
 - 4월의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0.5% 증가, 5월의 공공공사 하청금액은 전월 대비 0.7% 감소, 4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18.0% 증가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감염증 영향으로 인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수입은 감염증 영향은 있지만 최근 감소세가 멈추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됨
 - 수출은 감염증 영향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미국·EU·기타지역 쪽 수출은 급감하고 있음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영향을 살펴보면, 5월의 방일 외국인수는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함
 - 수입 경우는 감염증 영향은 있지만 최근 감소세가 멈추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감소세가 멈추고 있고, 미국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약세임
 - 무역·서비스 수지는 적자임
 - 4월의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감소에 따라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5월의 적자폭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하였지만 그 금액이 8,382억엔으로 여전히 많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기업 생산은 감염증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음
 - 광공업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4월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9.8% 감소하였고, 4월 광공업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0.3%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전월 대비 5월은 4.1% 감소, 6월은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는 수송기계는 대폭 감소, 생산용 기계는 감소,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는 회복 상태임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소가 멈출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의 하향 변동 리스크 및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영향에 크게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업황 판단은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도산 건수는 증가추세가 나타남
 - ‘법인기업통계季報’ (1-3월期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3월期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32.0% 감소, 전기 대비 11.6% 감소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전년 대비 제조업이 29.5% 감소, 비제조업이 32.9% 감소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전년 대비 대·중견기업이 42.0% 감소, 중소기업이 동 11.5% 감소로 나타남
- 일본은행 3월 短觀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 0.7% 감소, 하반기 0.8% 증가가 예상되고, 경상이익은 상반기 7.2% 감소, 하반기 2.9%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도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개선의 조짐이 보임
- 도산 건수는 3월 740건, 4월 743건, 5월 314건이며, 부채총액은 3월 1,059억엔, 4월 1,449억엔, 5월 813억엔임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완전실업률은 4월에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하여, 2.6%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증가함
 - 고용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고, 신규 구인 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대폭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 총액은 최근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 실질 충고용자소득은 최근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일본은행 3월 短觀에 따르면 기업들의 고용인원 판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해지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사회경제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음

[물가 및 금융]

- 국내 기업물가는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상태임
 - 5월 국내 기업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전월 대비 0.4% 하락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도 하락하고 있음
 - ‘선식식품을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최근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보면 5월에는 전월 대비 1.6% 포인트 상승하여 72.3%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는 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권내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하락-상승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저-엔고-엔저 추세를 보임
 - 주가는 21,800엔대에서 23,100엔대까지 상승한 후 21,500엔대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22,400엔대로 상승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7엔대에서 109엔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다가, 106엔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7엔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7%대에서 -0.01%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은 전년 대비 5.1%(5월) 증가함
- 5월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고, M2는 전년 대비 5.1% 증가함

□ 일본 정부의 2020년 5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6.19 내용 정리)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및 201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탈피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동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COVID-19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함
 - 감염증 확대 방지책을 계속 강구하면서 사회경제활동의 레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음
 - 고용·사업·생활을 지켜내 가며 경제회복과 사회변혁 추진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도 제1차 보정예산을 포함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4월 20일 閣議 결정) 및 제2차 보정예산(5월 27일 概算 閣議 결정, 6월 12일 국회에서 성립)을 가능한 한 신속히 실행함
 - COVID-19에 따른 국민의식 및 세계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일본이 추구하는 경제사회 모습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7월 중순을 목표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0(가칭)’ 등을 마련할 예정임
- 일본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함
 - 일본은행은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함
 - 금융시장 안정 유지의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정부의 경제 관련 대응

- COVID-19 감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추경 (NHK, 20.6.12)
 - 제2차 보정 예산, 추가 세출이 일반회계 총액 31조9,114억엔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는 과거 최대
 - 주요 내용은 긴급 포괄 지원 교부금 확충, 의료용 물자 확보, 치료약·백신의 개발 자금 보조 외 조기 실용화를 위한 생산 체제 정비 비용, 임산부 PCR 검사, 한부모 세대 지원, 대학 등의 등록금 감면, 교원 학습지도원 추가 배치, 학교감염증대책 학습보장, 고용조정조성금 확충, 휴업 지원금 제도의 창설, 집세 지원 급부금의 창설, 지속화 급부금, 자금융통 지원·자본증강책, 공적자금 규모 확대 및 조건 완화 등

| 제2차 추경 주요 내용 | |
|--------------------|--|
| 긴급포괄지원교부금 확충 | 병상의 확보나 인공호흡기 정비 등, 지역의 의료 제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포괄지원교부금은 2조2,370억엔 증액 |
| 의료용 물자의 확보 | 의료 현장에서 부족한 의료 물자를 사들여,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4,397억엔 계상 |
| 치료약·백신 | 치료약이나 백신의 개발 자금의 보조 외, 조기 실용화를 향해서 생산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2,055억엔 계상 |
| 임산부 PCR 검사 | 신생아와 입회 조산사 등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출산 직전의 임산부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PCR 검사 실시 |
| 한부모 세대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세대에 임시 급부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1,365억엔 계상 |
| 대학 등의 등록금 감면 |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측이 수업료 등의 감면을 실시했을 경우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으로 153억엔을 증당함 |
| 교원 학습지도원 추가 배치 | 휴교가 계속 된 학교의 재개에 수반해 학습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직원 등의 인재 확보 지원으로 318억엔 계상 |
| 학교감염증대책 학습보장 | 학교에서의 감염 대책과 가정용 학습 교재의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학교당 100만엔에서 300만엔 정도를 긴급지원 |
| 고용조정조성금 확충 | 휴업 수당 일부를 조성하는 고용 조정 조성금에 대해서 현재 1명 1일 당 8,330엔인 상한액을 1만5,000엔으로 인상 |
| 휴업 지원금 제도의 창설 | 근무처에서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가가 직접 급부하는 휴업 지원금 제도를 창설하기 위해 5,400억엔 납짓을 계상 |
| 집세 지원 급부금의 창설 |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급부금 창설에 2조242억엔 포함 |
| 지속화 급부금 |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 등에게 최대 200만엔을 급부하는 지속화 급부금에 대해 대상의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조9,400억엔을 추가 계상 |
| 자금융통지원·자본증강책 | 기업의 재무 기반 강화책이나 무이자·무담보 융자 제도 등 자금융통지원의 확충에 11조6,390억엔을 계상해 새롭게 94조엔 규모의 자금법위를 마련함 |
| 공적자금 투입이 쉽도록 하는 조치 | 금융기관 자금조달 지원을 도와주기 위해 금융기능강화법을 개정, 대출에 해당하는 은행과 신용금고의 재무기반이 약화된 것에 대비해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 규모를 15조엔으로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함 |

- 일본정부는 출입국 제한 완화에 관해 6월 하순에도 베트남으로 가는 일본인의 출국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닛케이신문, 20.6.15)
 - 베트남으로 일본인 출국의 시행 단계로서 전세 항공편으로 비즈니스 관계자 등 최대 250명이 출발하며, 출발 전에 PCR 검사를 실시할 방침
 - 외무성 간부에 의하면 베트남은 경제 활동의 재개를 위해 일본의 비즈니스 관계자의 수락에 적극적이라고 함
 - 일본무역진흥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12월 시점에서 1,800사를 넘는 일본계 기업이 진출하고 있음
 - 일본 측도 베트남으로부터의 입국 규제 완화책을 검토하며,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의에 들어갔음
 - 4개국 이외에 대해서도 국내외 감염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상국의 확대를 고려하는데, 중국이나 한국, 미국 등 일본과 관계가 깊은 국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함
- 스가 관방장관은 의료품 등을 일본국내에서 생산할 필요성을 재차 지적함 (닛케이신문, 20.6.16)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COVID-19의 영향으로 수입에 의지하던 제품의 조달이 난항을 겪은 것에 관해 보건 위생,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품은 안정적인 공급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일본정부는 2020년 제1차 보정 예산에 생산 거점의 일본 국내 회귀를 재촉하는 보조금으로 2,200억엔을 계상하였음
- 아베 총리는 18일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입국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아사히신문, 20.6.19)
 - 일본 정부는 111개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입국 거부라고 하는 유입방지대책은 유지하면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조건으로 비즈니스상 필요한 인재를 받아들임
 - 일본 대책본부에서 아베 총리는 타액 PCR 검사 등을 도입하거나 출입국자를 위한 PCR 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하도록 지시함
- 19일부터 도도부현간 이동을 해금하기로 결정함 (산케이신문, 20.6.19)
 - 정부는 19일부터 도도부현간 이동을 해금하기로 결정하고, 음식점에 대한 휴업요청도 해제했음
 - 아베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감염예방책을 강구하면서 사회경제활동을 본격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 정부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19일부터 배포하는 새로운 대책도 도입하였음

□ 한일 협력 관련 동향

- “한중일 협력은 일본에게 실리” 한중일3국협력 사무국장 미치가미 히사시 씨 (닛케이신문, 20.6.17)
 - 필자인 미치가미 히사시 씨는 한중일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서울에 설치된 국제기구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음
 - 한중일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의 24%, 자동차 생산은 50%를 차지함
 - 동아시아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넘은 생산과 시장의 연계가 발전의 기반이어서 COVID-19에 의한 타격이 크고, 한중일의 인적 왕래도 멈춰지만 외무장관, 보건장관 간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상황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음
 - 한중일에는 각료급 회의만 21개가 있고, 지난해 말 5주 동안 각료회의 5개와 정상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활발했음
 - 무역, 관광, 물류, 감염증 대책, 환경, 대학 간 교류에서는 이웃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일본의 많은 관청은 한중일 정보교환이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학생, 문화, 비즈니스 등 민간 3개국 교류도 추진하고 있음
 - 민간교류에서 사실 일본의 이점이 가장 크며, 일본은 한중의 결점만 보고 일취월장하는 성장을 간파하고 과소평가해서는 위험함
 - 정보 수집이나 정책 발신, 일본의 민간의 힘을 끌어올리는데 한중일 스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본의 실리가 됨
- 경제산업대신은 수출관리 관련 한국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함 (닛케이신문, 20.6.19)
 -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대신은 19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분쟁 해결 수속을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양국간의 정책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 한국 정부는 18일 WTO에 대해 1심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음
- RCEP 각료회의가 2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요미우리신문, 20.6.23)
 -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에 의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각료회의가 23일 오전 화상회의 방식으로 시작되어 저녁까지 15개국에서 연내 서명을 위해 관세인하 수준 등 남은 과제를 논의할 예정
 - 각료회의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만이며,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에서의 이탈을 표명한 인도를 빼고 협의가 시작되었음
 - RECP협상은 이미 투자와 지적재산 등 총 20개 분야 중 18개 분야에서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법적 정밀조사 단계임
 - 참가국이 각각 2국간에 조정하는 관세인하 수준과 외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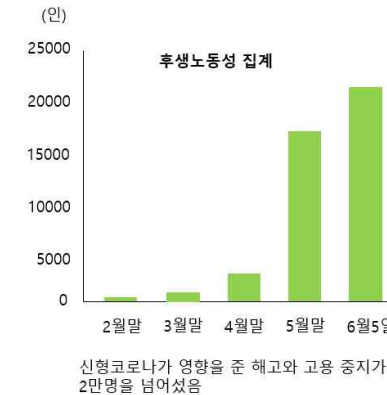
- [‘이웃’ 이해의 단서:5] 새로운 문명, 한일이 만드는 기개를. 오구라 기조 교수 (아사히신문, 20.6.25)
 - ‘한일관계’란 일본과 한국의 다중적이고 다층적 관계의 총체인데 정치 등 일부만 대표가 되는 상황에 있음
 - 일본과 한국은 문화, 관습도 다르지만 더 큰 수준의 세계관이 다른데, 예를 들면 유교적 생각의 침투도나 역사의 시각도 다르고, 세계화에 대한 위화감이 강한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차이도 있음
 - 한일이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는 기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한일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양국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이 해 온 노력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포함해 ‘한일 모델’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관부페리 50년 기념 해인데, COVID-19로 타격 (아사히신문, 20.6.29)
 -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와 한국 부산시를 잇는 관부페리가 50주년을 맞이했으나, COVID-19 감염 확산으로 3월 이후 여객운항을 중단하고 화물만 취급하는 운항이 이어지고 있음
 - 관부페리는 한국인 승객이 80% 가량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여름부터 한일 관계 악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COVID-19가 가세했음
 - 시모노세키 여름 풍물시 ‘바칸(마관)축제’에서는 시민이 부산 참가자와 함께 조선 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것이 상례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개최 중지되었고, 관문해협 불꽃놀이도 취소됨
 - 관부페리의 단골손님은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행상인들인데, 수업업자는 보따리상을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또한 시모노세키시의 면세판매점 운영자는 상품들이 유통기한을 넘겨 재고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관부페리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5년 후, 일본 최초의 국제 정기 페리로 70년 6월 19일에 취항했는데, 당초 일본측 1척만으로 운항했고 1983년 한국측 페리도 추가됨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국내 기업 동향

- 생산감소로 인한 부품 공급망 문제 (아사히신문, 20.6.1)
 - 토요타자동차 등 자동차업체들은 부품공급망이 끊어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연재해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을 개선해왔음
 - COVID-19의 여파로 생산감소와 도시 봉쇄 등으로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이러한 위기상황 시 적응에 대한 재검토를 모색하고 있음
 - 대폭 생산감소를 유발한 코로나 위기로 자동차 회사들은 중소 하청 부품업체들의 상황을 빠르게 수집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재고를 최대한 갖지 않는 토요타 생산방식은 생산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할 경우 생산이 불가능함
 - 업계에서는 부품 공급망을 ‘가시화’ 하는 시스템을 2013년에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하청업체의 생산거점과 품목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여 긴급시 대체 생산이나 복수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조달이 쉬워질 수 있음
 - COVID-19로 인해 해외에서의 부품 조달이 늦어져 국내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음
 - 하청의 부품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인데, 수요 침체가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에 타격이 더 크기 때문임
- COVID-19의 영향으로 도산한 기업이 6월 1일까지 전국에서 20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NHK, 20.6.1)
 -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의하면, COVID-19의 영향으로 파산 등의 법적 수속을 취해 도산한 기업은 1일 오후 시점 전국에서 134사, 사업을 정지하고 법적 정리 준비에 들어간 기업도 66개사에 이르렀음
 - 업종별로는 호텔이나 여관 등이 39사, 음식점이 24사, 여성복이나 구두, 잡화 등이 16사임
 - 조사대상 회사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었지만 기업의 자금유통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라고 하였음

- COVID-19 영향으로 없어진 일자리 2만 초과 (아사히신문, 20.6.9)
 - 후생노동성이 9일에 발표한 집계에 의하면 COVID-19 영향으로 해고 및 고용 중지(예정 포함) 상태인 근로자가 2만 명을 넘었음
 - 누계로 보면 숙박업이 4,3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3,484명, 제조업이 2,813명으로 나타남
 - 각지의 노동국이 파악한 인원수이므로 실제로 해고나 고용중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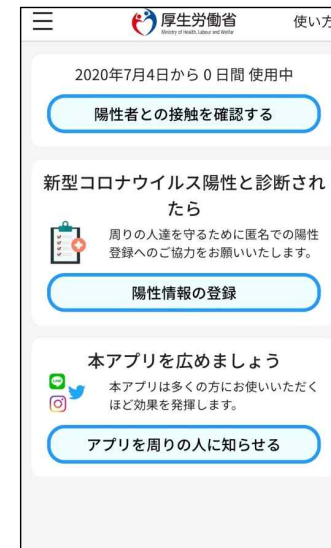


- 노무라증권의 주요기업 실적전망이 하향 조정됨 (산케이신문, 20.6.9)
 - 노무라증권이 발표한 주요기업 실적전망에 따르면 2020년도 경영이익은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쳤으며, 2월 시점 9.8%에서 9.6%로 하향조정 되었음
 - 실적전망은 금융을 제외한 주요 306사의 5월말 시점 실적을 기초로 집계하였는데, 전 19업종 중 이익감소가 예상되는 업종은 7업종임
- 미쓰비시중공업이 미쓰이E&S홀딩스의 합정 사업을 매수하는 협의에 들어간다고 발표함 (닛케이신문, 20.6.13)
 - 일본 국내 조선업체들은 중국 및 한국 업체에 밀려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 회사는 합정 부문을 집약해 코스트 경쟁력을 높임
 - 미쓰비시중공업은 방위 관련으로 약 4,000억엔의 매상고가 있으며 전차와 이지스함, 전투기 등 육해공 자위대의 방위장비품을 종합적으로 다룸
 - 미쓰이E&S의 합정을 포함한 선박 사업의 매상고는 1,151억엔으로 보급함이나 해양 관측함 등 ‘전투함’ 외의 건조나 수리에 강점을 가짐

- 매수가 실현되면, 합정을 다루는 일본국내 기업은 양 회사와 카와사키중공업, 재팬 마린유나이티드(JMU, 요코하마시)의 4사에서 3사로 집약됨
 - 미쓰이E&S가 합정 부문을 내놓는 배경에는 수익의 악화가 있음
 - 거대 기업끼리 통합해 국가 금융 지원을 받는 한국 및 중국 조선업체와의 가격 경쟁은 치열함
 - 10월에도 국내 선두인 이마바리조선과 2위 JMU가 상선의 공동 영업·설계회사를 세우는 등 생존을 목표로 국내 대기업 재편의 기운도 높아지고 있음
- COVID-19 대책 때문에 일·중 간 왕래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에 거점을 둔 일본계 기업의 사업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산케이신문, 20.6.21)
- 상하이 등의 일본계 기업 양케이트에서 회담 기업의 40%가 경영 간부를 포함한 주재원이 중국에 복귀하고 있지 않다고 회답
 - 기술지도자 부재로 인해 공장에서 불량품이 다량 발생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어 조기 복귀를 바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회담 기업은 ‘충경리가 반년간 부재해 조직 운영에 영향이 있다’, ‘기술 품질 지도로 파견해야 할 인력이 중국에 들어갈 수 없어, 불량품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했음
- 경단련의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챌린지·제로’에 130여 개 기업 및 단체 참여 발표 (NHK, 20.6.9)
- ‘챌린지·제로’는 경단련이 밝힌 탈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구상으로, 기업은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거나 큰 폭으로 삭감하는 기술의 개발이나 보급에 임함
 - 토요타자동차, 일본제철, 전력회사와 대형은행 등 13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
 - 경단련은 기술 공개를 통해서 타 업종이나 대학 등과의 제휴를 촉진하여 온실 효과 가스 삭감을 위한 대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기술개발 관련 동향

- COVID-19 감염자와의 밀접접촉을 통보하는 앱 이용이 19일 오후 시작됨 (NHK, 20.6.19)
- 일본 정부는 신속한 검사나 감염 확대의 방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폭넓게 이용하기를 당부하고 있음
- ‘COCOA’ 라는 앱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일정한 거리에 가까워지면, 상대의 데이터를 서로 기록해 이용자가 COVID-19에 감염됐을 경우 기록된 상대방에게 밀접 접촉 의혹이 있다고 통지하는 시스템임
- 이 앱은 15분 이상 1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으면 접촉한 상태로 기록되며, 전화번호나 위치정보 등 개인의 특정 정보는 기록되지 않고 14일이 경과하면 접촉정보 자체도 삭제되는 등,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앱에 비해 익명성이 높다고 함
- 감염 통보 여부는 감염된 사람에게 맡기고 보건소에서 통보받은 처리번호를 본인의 앱에 입력해 처음 접촉한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출처: 실제 사용자의 앱 구동 화면을 캡처한 것임

□ 한국 진출 일본기업 동향

- 산요카세이, 윤활유 첨가제 신시리즈 본격 판매 (닛케이신문, 20.6.25)
 - 산요카세이공업은 자동차의 연비 성능을 높이는 윤활유첨가제 신시리즈 ‘아크루브 V-6000’의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 당분간은 일본 가시마 공장(이바라키현 가미시)에서 생산하고, 해외 공장에서의 증산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크루브는 온도에 의한 윤활유 변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V-6000은 고성능 엔진유에 적합함
 - 산요카세이는 일본 국내 공장 외, 9월경에 완성 예정인 한국 공장과 미국, 중국의 기존 설비 등 복수 거점에서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일 기업 협력 관련 동향

- KOTRA 한국무역센터(후쿠오카)가 온라인으로 상품 전시회를 진행 (닛케이신문, 20.6.9)
 - KOTRA 한국무역센터(후쿠오카)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한국 기업이 상품을 출품하는 상품 전시회를 진행함
 - COVID-19 확산 영향으로 인한 해외 이동 제한으로 한국 기업과의 상담이 어려워졌기 때문
 - 일본 기업이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을 경우 일정을 조정해 한국 기업과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시 통역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음

Ⅲ. KJCF & KJE News

「2020 온라인 기술인재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 교육기간 : - 1차(기초) 2020년 8월 18일(화)~21일(금) / 3박 4일
- 2차(심화) 2020년 8월 25일(화)~28일(금) / 3박 4일
- 교육장소 :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재직자 70명(35명x2회) 7과정, 각 과정별 5~6명
- 지원내용 : 참가비무료(교육비, 숙식, 교재 지원)
- 교육구성 : 이론교육 및 사례연구 강의, 개선안정리 및 결과보고회
※ 온라인(화상) 집체교육 실시
- 참고사항 : 본 교육 종료 후, 희망기업(5사)에 한해 4일 간 온라인 기술자문 연계 가능
- 교육과정 : ①사출성형(금형설계 포함) ②표면처리 ③열처리 ④절삭가공기계 ⑤주조 ⑥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⑦자동화(FA) 중 택 1
- 모집마감 : ~ 7월 24일(금) 18:00 홈페이지 접수분

참가 신청하기 ⇨ https://www.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843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http://www.kjc.or.kr/jpinfo/report.jsp>)

- 일본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과 시사점(2020-06-17)
- [일본발(發) 연구리포트]
 - 고객 니즈에 대응해 사업을 확대하는 '닛산스틸공업'(2020-07-08)
 - 코로나 대응과 물류업의 ICT 활용 및 업무개선(2020-07-07)
 - 일본에서 확대하는 제조업의 국내회귀(2020-07-01)
 - 일본의 IT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관련성(2020-06-3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약 개발 이노베이션의 예상외의 효과(2020-06-29)
 - 일본에 필요한 채용·고용 개혁의 방향성(2020-06-25)
 - CASE 시대의 일본 자동차 정책의 방향성(2020-06-16)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순환 형 경제시스템의 구축(2020-06-15)